

씨을에 대한 해석

‘씨을’이란 말은 백성, 즉 하늘에 머리를 둔 민초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씨을여성회는 가장 낮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people의 뜻인데, 우리 자신을 모든 역사적 죄악에서 해방 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격을 스스로 닦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을』은 아래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글자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o」은 극대(極大)혹은 초월적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은 극소 혹은 내재적인 하늘, 곧 자아를 의미합니다.
「ㄹ」은 활동하며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박 노 해

여자 없는 벽 속에서 오랜 세월 빛 바래가면
 여자는 얼굴도 구별도 형체도 사라지고
 오직 따뜻하고 부드러운 흰 살로,
 깊고 촉촉하고 아늑한 품으로,
 등그스름한 젖가슴과 엉덩이 능선으로 안개 속 해처럼 떠오릅니다
 그런 여자를 꿈꾸고 난 새벽이면 누운 채로 아득히 그리움에 출렁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흐르는 새벽 강물이여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여자가 왜 남자보다 키가 작은지 아십니까?
 여자가 왜 남자보다 힘이 약한지 아십니까?

자궁과 젖가슴을 집중해서 발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생명을 낳아 기르기 위해
 키 크는 성장도 싸우는 강함도 멈춰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속이 깊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강인한 겁니다
 미래를 위해 기꺼이 키 작아지고 힘 약해지는 것입니다

불덩이 시대의 사랑을 품고 오늘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사람아
 자기 성장의 강한 힘을 안으로 들이부어 희망 하나 키워가는 사람아
 미래를 낳고 기르기 위해 기꺼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아

여자여 여자여 내 안의 여자여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채로 가만히 흐르는 새벽 강물이여





용의 활기찬 비상을 꿈꾸며.....

곽라분이(씨울 여성회 상임이사)



씨울 여성회 19호(겨울호)를 내면서 씨울가족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안 하셨습니까? 2011년은 씨울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씨울 여성회가 훌쩍 자라는 한 해였습니다.

어느 해인들 안 그랬나마는 2011년을 보내면서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쓰나미 지진, 홍수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의 많은 씨울들이 죽고 희생당한 안타까운 일과 소식들이 우리를 슬프게 했던 해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온 씨울가족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씨울은 생명의 기본원리로 스스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씨울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새 생명을 일궈냅니다.”

씨울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체자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씨울들을 통해서 역사의 변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2012년 새해도, 성숙한 21세기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평화문화를 이 땅위에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 하나하나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새해는 씨울 여성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3월말쯤 창립 1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나눔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가 있고 여성의 정치참여 욕구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씨울 여러분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살기 좋은 우리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권자로서 시민의 주권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씨울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씨울 여성 19호를 내면서 흠어진 씨울들과 진솔한 이야기로 소통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글로 참여해주신 씨울가족들에게 다시 감사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아침을 '희망'이라는 말로 시작해봅니다.

지난해의 낡은 껍질을 벗기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용의 활기찬 비상을 꿈꾸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한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씨울여성회

ssialwomen.org

여는마당

01. (시) 나는 왜 이리 여자가 그리운가 - 박노해 (시인)	3
02. 인사글 - 광라분이(씨울여성회 상임이사)	4

씨울한마당

03. 사무국	
기획글/ FTA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 편집실	6
특집글/ 학교폭력, 누가 가해자인가? 광라분이(씨울여성회 상임이사)	11
기행글/ 허난설헌생가 기행- 김영숙(씨울여성회 사무국장)	14
새해수상록 / 우리는 달릴것이다- 김광휘(씨울여성회 이사장)	16
10주년을 기념하며 -박용래(대한건설협회 광주시협의회회장)	19
우리광주의 천재적시인 허난설헌에 대하여-양경애(서울독토 회원)	21
내인생의 새로운 경험 "씨울여성회" 사회복지실습을 마치고 -김을미(사회복지실습생)	23
사무국 활동	25
04. 성폭력 상담소	30
여기는 상담실입니다	31
2011년 상담통계현황(하반기)	32
설문조사 광주시민 100인에게 묻다(류복연 상담소장)	34
성교육전문강사모임에 참여하며 - 조형자(성교육 전문강사)	36
재미있게 배운 내 몸과 친구들의 몸 - 이미나(재활플러스 어린이집 교사)	38
상담소 활동	39
05.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8
한국어교실 수업 중에	49
2011년 하반기에 이런 활동을	52
06. 씨울가족소식	57
07. 서가산책	59

참여마당

08. 2012년 사업 · 교육 · 행사계획	61
09. 2011년 하반기 후원자명단	67
10. 씨울여성회가 하는일	69
11. 회원가입	71
12. 약도	72



FTA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편집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에프티에이를 강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심판만 남은듯하다.

이대통령은 법률안 서명 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협정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협정을 강행처리 하는데 대한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더 거세게 저항할 태세다. 당장 야5당은 공동성명을 내어 “주권자의 동의 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대통령서명에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이후 바뀐 국회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협정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와 야당이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과 민주적 합의 절차없이 협정을 밀어 붙인 결과다. 정부가 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발효준비 절차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협정발효조건을 규정한 협정문 24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표되려면 두 나라가 똑같이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상대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미국의 현행 법령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았다. 야5당이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미국의 현행 법률에서 협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살펴본 결과, 불과 며칠새 4건이나 파악됐다고 한다. 미국은 아직 협정이행 준비를 다하지 않은셈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단지 두 나라 간 상품교역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기업과 금융자본,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법과 제도를 일거에 바꿔버린다.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외부충격이다. 국민은 이런 충격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한미FTA 독소조항 '논란'

제약·자동차·서비스 국내 피해 '우려'

전문가 "국내법에 우선, 규제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운동기자]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협상이 예고된 ISD 제도 외에 스냅백, 래칫 등 또 다른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정부의 규제밖에 있는 일부 조항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복제약(제네릭)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승인 절차를 밟을 때 원래 약의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에 큰 원동력인 제네릭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업체들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에게만 적용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관련해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거나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내 철폐된 관세가 즉시 복구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일시에 철폐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역진방지(Ratchet)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 조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일단 개방하면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다.

예를들어 스크린쿼터의 경우 협정에는 73일 이상으로 돼 있지만 우리 정부가 60일 등으로 축소하면 나중에 다시 73일로 복원하는게 불가능해진다. 영리병원 허용 문제나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 최혜국 대우란 협정 발효 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새로운 협정을 맺어 더 많은 개방, 더 좋은 혜택을 약속하면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수록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 방식인 '네거티브식' 개방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미리 개방하지 않기로 정한 부분은 개방을 막을 수 있지만 미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은 자동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에는 "미국법률과 한미 FTA 협정이 저촉·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

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쪽에서 한미 FTA로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제대로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는 "한미 FTA는 현대 FTA에서 독소조항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며 "한미 FTA로 우리 정부의 각종 공공정책이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주동포들도 한미FTA 절대 반대!

미주동포들도 한미FTA 절대 반대!

국민적 복지 원한다면 한미FTA 통과 안 돼

한미FTA 미국 국회 비준을 바라보는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맞춰 급속히 통과된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 내 동포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허나 미국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단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

2006년 3월 처음으로 한미FTA 협상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미주지역에서는 같은 해 6월 한국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원정시위를 시작으로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한국의 원정시위에 적극 연대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워싱턴,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많은 지역의 동포들이 참여한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이하 재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워싱턴, 시애틀, 몬타나에서 한국에서 온 원정단과 연대투쟁을 하고, 2006년 11월에는 한미FTA 반대를 위한 한국 원정단까지 파견하며 1년여에 걸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미국 내 노동자, 농민 그리고 양심적 시민들의 연대와 호응으로 시애틀에서는 1000여 명이 넘게 함께한 시위를 만들어냈고, 1차와 7차 협상을 가졌던 워싱턴에서는 미국 노동단체인 AFLCIO와 연대해 미 국회를 수차례 걸쳐 방문하여 NAFTA 이후 제기되어온 FTA의 부당성과 그 비민주성 그리고 반민중성에 대해 홍보를 하였다.

미국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에 대해 대부분 한국 언론은 그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나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한미FTA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하원에서는 278표(64%) 대 151(35%), 상원에서는 83(83%) 대 15(15%)로 통과됐다.

그러나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3개 주에서는 찬성 48명, 반대 46명, 기권 1명을 나타나 겨우 50%를 턱걸이 하여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지지와 비준 촉구에 적극 참여하며 미 전국을 돌면서 한미FTA 비준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 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이사장인 김동석씨는 "한미 정부가 FTA를 체결하고 4년 3개월 동안이나 해왔던 것은 한인동포들의 풀뿌리 정치력을 옹기 활용하지 못했던 원인이 50%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동포사회 모두가 한미FTA를 지지한 것은 분명 아니다.

또한 김동석씨는 "미 의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지만, 의원들에게 동포사회의 현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한인들은 또 그 의원의 정치적인 입장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비효율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과 진단은 한미FTA를 지지한 일부 한인들에게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모든 한인을 대상으로 한 말이라면 분명히 왜곡된 표현이다.



미주동포들 중 한미FTA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활동한 분들도 많고, 지금도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동포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김동석씨같이 동포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미국 의회가 모두 한미FTA에 대해 무조건 찬성한 것도 아님은 <뉴욕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욕일보>는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 10월 12일 김동석씨는 당국으로부터 의회비준이 완료되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참석할 것을 요청받고 백악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율이 너무 낮아 공개적인 서명식을 갖지 않기로 함으로써 참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한미FTA는 동포사회에서뿐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도 한국 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결과는 중요하다. 한미FTA는 미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갔다. 한국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번 한미FTA의 친대기업성과 비민주성, 반노동자성과 반주권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6년부터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미주동포들과 제단체들은 11월 7일 "한미FTA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한미FTA가 한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판단한다"며 한국 국회는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재재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현 한미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으며, 불평등한 퍼주기 협정이다. 현 한미FTA의 본질은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민주적 협정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단순히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라,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 ISD와 같은 국가통상주권과 입법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초헌법적이기에 결코 강행처리 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비록 미국 국회는 비준안을 통과시켰지만 결코 동포사회나 미국 사회가 한미FTA의 문제점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 국회가 한미FTA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재재협상을 추

진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라도 실시한다면, 정의로운 미주동포들과 많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함께 호응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한국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판단한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더욱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재재협상에 임할것을 요구한다.

현 한미FTA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으며, 불평등하고 퍼주기 협정이다. 현 한미FTA의 본질은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이며, 반민주적 협정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다는 수준의 주고받기가 아니라, 심각한 이익의 불균형, ISD와 같은 국가통상주권과 입법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초헌법적이기에 결코 강행처리 되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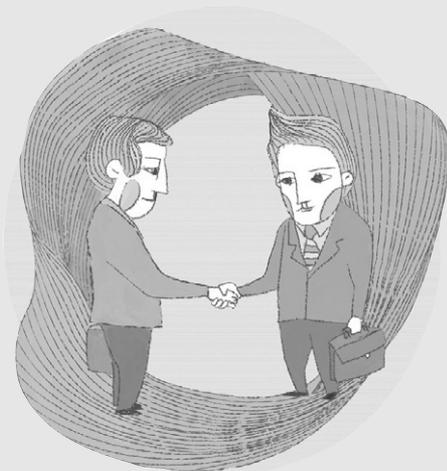
한미FTA는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한미FTA가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차분하게 경제효과를 다시 분석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한 계층을 희생시켜 다른 계층이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보편 복지를 지향하고 양극화를 막아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면 그 상극인 한미FTA는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FTA에 모든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각히 침해된 이익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재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출처

- 2011.11.8일 오마이뉴스(인터넷신문)
- 2011.11.30일 한겨레신문
- 2011.11.23일 서울파이낸스신문



학교폭력, 누가 가해자인가?

곽라분이(씨울 여성회 상임이사)

학교 폭력 왕따 등의 문제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등 아직 어린 나이로서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고 저질렀다고 보기엔 그들이 폭력으로 불리일으키는 문제가 너무 크다. 학교폭력은 작게는 학교 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자면 폭력을 당한 입장에서는 가정과 사회생활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초, 중학교의 폭력은 한명이 시작해서 점점 다수의 인원이 같이 행동하는 폭력으로 커지게 되며 폭력의 질과 패턴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전학을 가고 기출을 하고 자살하는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학교폭력에 단호히 맞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어린시절 겪었던 학교폭력의 후유증은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신적 공황을 겪기도 하는 등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학교폭력은 당하는 입장에서부터 철저히 근절되도록 예방해야한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서둘러 급히 대책을 내놓겠다고며 부랴부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형사처벌 연령을 14세 이상에서 12세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를 비롯해서 2005년, 2010년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수차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의 하나로 '범정부적 폭력-파도림 없는 학교 만들기'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학교폭력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을 바라보는 심정은 씁쓸하기만 하다. 우리사회는 지금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만 왔다. 최근 한·중·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패해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38% 일본은 28%였다니 우리의 심각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책은 학교 폭력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 대책은 그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가해자를 처벌하고 격리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

하지만 지금 구속돼 처벌을 기다리는 자만이 가해자일까? 아니다. 오히려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체 방치한 우리 모두가 가해자다. 저들은 우리가 만든 폭력문화, 위계적인 억압 문화를 학습하고 전수받은 후예들이 아닌가? 이어 학교는 일반적으로 군대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의사와 내적 리듬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억압적 사회다. 학생들의 일탈행위는 이런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서 줄곧 이어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제도적 억압에 더해 입시라는 질곡이 덧씌워져 있다. 입시경쟁은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공부 안하고 잘못될까봐 내버려둔다는 부모가 3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부모의 관심은 오로지 성적 뿐이다. 이런 부모 등쌀에 교사들 역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 엄두도 못 낸다. 참으로 인성교육은 영. 수, 국 보다 앞서야 한다. 인성교육이야 말로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필수과목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배우고 '폭력은 범죄'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인성지도를 책임지도록 돼 있는 상담교사조차 본업 대신 입시상담에 주력해야 하는 게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이다. “좋은 성적이란 결과”가 아이들 자신보다 더 존중되고 사회적 반사회적인 전략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아이들은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사랑의 결핍, 배려의 결핍이다. 아이들이 아프다고 외쳐도 어른들은 외면해 왔다.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은 컴퓨터나 오락에서 그 위안을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폭력물과 음란물이 넘쳐난다. 따스한 인간적 접촉과 배려가 결핍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키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모두 우리 기성인들이 만들어놓은 이 끔찍한 사회, 끔찍한 교육환경의 희생자다.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배우고 행동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고는 학교폭력이 해결 될 수 없다고 믿는다. 아이들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의 병든 마음을 보살피고 스스로 반사회적인 전략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단기적 대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즉시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학교폭력 구조대를 만들 수도 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인 방법이 된다. 아울러, 극도의 경쟁으로 날카로워진 아이들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교육 전반을 성찰할 때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을게 아니라 전인교육으로 인성교육 쪽을 더 많이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동덕여고는 지난해 1학년

을 대상으로 주 1회 명상시간을 진행했는데 수업 전후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압박감이 줄어드는 성과가 확인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학생들은 명상수업의 느낌을 ‘메마른 땅의 소낙비’, ‘사막속 오아시스’ 등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단기 대책도, 청소년들을 메마른 사막으로 몰아넣는 입시위주의 경쟁체제에서 그들을 해방 시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연결 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올릴 수 없다. 핀란드처럼 좌우를 넘어 모든 당사자들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아이들을 죽음과 폭력으로 내모는 ‘죽음의 교육’이 아닌 ‘살림의 교육’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침 선거철이니, 주요 정당들이 교육정책만큼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공통으로 마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밝아야 세상이 아름답다. 우리아이들을 살리자!”

***학교폭력상담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12’**



허난설헌 생가 기행

김 영 숙 (씨울 여성회 사무국장)

“청량리 심야열차타고 출발 ~ 강릉역도착 ~ 정동진 모래시계 ~ 정동진 일출 ~ 오죽헌 ~ 선교장 ~ 허난설헌생가”

- 청량리역 ~ 심야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10주년행사 1차회의 진행
- 심야열차 타고 출발 ~ 강릉까지 4시간50분소요. 즐거운 담소, 칠흙같이 어두운 밤풍경 감상.
- 강릉역 도착 ~ 새벽5시
- 정동진 대형모래시계 앞 ~ 경건한 묵념
- 정동진 일출 ~ 7시 33분 해가 떠오르기 전 주변에 붉은노을이 장관을 이루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이 산모가 모진 진통 끝에 출산하는 모습과 흡사하였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일출광경은 새해소망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것이다.
- 오죽헌 ~
뛰어난 여류 예술가이며 현모양처의 본보기인 신사임당과 훌륭한 학자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다. 문화해설가의 귀에 쪽~들어오는 낭랑하고 쉽게 풀이한 역사해설로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중의 하나이며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별당사랑채로 보물 165호이다. 오죽헌이 지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전이다.
- 선교장 ~
300년의 전통이 살아있는 조선시대 99칸 양반가옥, 전주사람인 이내반이 강릉에 이주하면서 지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살림집이다. 선교장은 집터가 뱃머리를 연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허난설헌 생가 ~

본명 초희로 명종 18년 강릉에서 출생, 8살때부터 시를 지은 천재시인이다. 가부장 문화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허난설헌은 빛을 보지 못했다. 해설가의 명문집안의 가족사를 들으며 천재시인이였지만 시대를 앞서 간 여자로서의 삶은 험난했던 가슴짙한 사연과 함께 숙연해졌다. 안채에서 바로 경포호수가 건너다 보인다. 봄이면 목단꽃, 하얀벚꽃이 흐드러진다고 하더니 지금은 젊은나이에 요절한 천재시인의 넋을 위로하려는듯 향량한 소나무숲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님 만나러 가는길

허난설헌

꽃관 머리에 쓰고
 꽃술 저고리 걸치고
 아홉 폭 무지개 치마 걸쳐 입으니
 어디선가 피리 소리 들려와 퍼지는구나.
 비춧빛 구름 사이로
 용 그림자,
 말 울음소리,
 넓은 바다에 반짝이는 달빛

나는야
 님 만나러 가는 길이란다.

우리는 달릴 것이다



김 광 휘 (씨을 여성회 이사장, 작가)

드라마 ‘동이’, ‘대장금’ 같은 히트작을 내놓은 이병훈 감독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긴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주로 다큐멘터리나 시사교양물을 써왔기 때문에 드라마는 고작 ‘제4공화국’ 같은 정치드라마를 썼을 뿐인데, 한 시간짜리 단막극을 기준으로 하여 총 3000편 이상의 드라마를 연출하였다는 이병훈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두 편 이상의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국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국의 어느 지방 방송사가 현재 하루에 두 편의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고, 일본에서도 어느 민영방송이 하루 두 편의 드라마를 내보낼 뿐, 방송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하루에 두 편의 드라마를 방영하는 곳이 없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형편은 어떤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우선 오전 9시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4개 공중파 방송이 일시에 아침드라마를 내보내고 있다. 아침부터 재벌이야기, 출생의 비밀, 불륜, 복수 등등 스텔 넘치는 이야기들이 주부들을 텔레비전 앞에 붙잡아 놓고 있다. 또 근래에는 일찍 명퇴하여 매

일 산에 오르기도 어려운 50대 중반 이후의 바깥양반들도 부인과 나란히 아침연속극을 즐기고 있다. 또 저녁에는 놀랍게도 9시 뉴스 직전에 경쟁적으로 공중파 방송이 드라마 전쟁을 벌이고, 뉴스 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드라마 혈투를 벌인다. 드라마도 대개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 식으로 규격화 되어있고, 3·1절이다, 6·25다, 8·15다 하는 기념일이 되면 특집드라마까지 겹치게 된다.

하루에 40분이 넘는 장편드라마를 방송사 하나가 세 편 이상을 방영하여 공중파 방송으로만 하루 12편 이상의 드라마가 전파를 타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각 케이블 TV에서는 편성이 애매할 때에는 이미 공중파에서 방영하였던 인기 있는 드라마를 재탕, 삼탕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유난히 드라마가 판을 치고, 한국드라마가 이제는 국내에서 판을 치다 못해 전 세계적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는가? 방송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드라마를 달라고 하면 별 생각 없이 무료로 건네주었다고 한다. 방송사 필름보관소에 거추장스럽게 쌓여있는 그 필름

들을 가지고 인심을 쓰고, 국제교류의 멋진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선히 무료로 전해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현지사람들이 어찌나 한국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흠뻑하고 녀을 빼는지 한국주재 자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드라마를 계속 요청해 왔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진 방송사측에서는 ‘어찌 공짜로만 줄 수 있겠는가? 단돈 얼마라도 내고 가져가야지’라고 넌지시 거래를 시작했더니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몇 만불 단위의 돈을 내고 필름을 사가고, 그 드라마를 상영한 후에는 자신들의 상품광고를 슬쩍 끼어 넣음으로써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장사가 되었다고 한다.

이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중동사막에 가도 한국드라마를 볼 수 있고,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서도 ‘대장금’을 볼 수 있다. 필자도 연전에 우즈베키스탄 변두리에 있는 사막도시 부하라에 관광을 갔다가 그곳 호텔에서 열심히 펼쳐지는 한국사극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한국드라마가 전 세계의 브라운관을 달구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한류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야, 드라마를 봤더니 한국 거리는 왜 그렇게 깨끗하냐? 한국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멋지게 옷을 입냐? 키스도 우리보다 훨씬 세련되게 하던데’ 이런 찬사와 함께 콧대 높던 일본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배용준과 최지우라는 청춘남녀에게 기가 꺾이고, 중년 부인들까지 윤사마에게 흠뻑하여 괜히 저희들끼리 떼를 지어 윤사마도 없는 남이섬을 헤매고, 명동 거리와 인사동을 누비면서 돈만 쓰고 가게 되었다.

우리 나이든 세대들은 일본인들의 의식을 알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일본에 가면 호텔 프론트에서 한국 여권을 보며 종업원들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요 조센징 봐라? 년 뭘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일본에게 놀러왔냐? 뭐? 특실을 달라고? 고안 놈. 너 같은 조센징이 무슨 특실이야?’ 그래서 우리 나이든 세대들은 일본에 가면 서툰 일본어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대신 가급적 혀가 굴러가게 기름칠을 해 가지고 영어를 쓴다. 그러면 그제야 기가 죽은 일본인들은 ‘하이, 하이’하며 굽신거린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나라도 일본 빼놓고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 가서 영어를 쓰면 영 찬밥인데...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윤사마가 일본열도를 정복한 후에는 일본 전역을 누비는 자동차에서는 겨울연가 CD가 돌아가게 되고, 그 교양미 넘치는 일본 중년 아주머니들이 겨울연가 OST를 들으며 ‘윤사마, 윤사마’를 애달프게 외쳤던 것이다.

이처럼 윤사마가 일본열도를 아주 평화적이며 문화적인 방법으로 평정한 이후 가요계에서는 보아라는 가수가 혜성 같은 존재로 무려 11년 동안 일본열도를 누비며 한국 젊은이의 향기, 그리고 열정을 전해 주었다. 보아 혼자서 참으로 힘들게 일본 정벌을 끝낸 후, 바로 우리의 후속부대가 일본열도에 상륙하였다. 동방신기라는 씩씩하고 잘생긴 한국 청년그룹이 일본열도의 최고 무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마음껏 뛰고 달렸다. 일본 소녀들은 동방신기의 무대 밑에서 자지러

지고 까부러지면서 ‘도대체 일본에는 동방신기처럼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왜 없느냐’ 탄식을 하며 눈물, 콧물을 흘렸다. 일본 청년들은 코가 석자나 빠져 자신의 걸프렌드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그렇게 비참한 세월이 흐른 후, 이번에는 카라라고 하는 소녀그룹이 일본에서 제일 큰 도쿄돔에 상륙하였다. 그 다섯명의 소녀가 일본 청중들을 향해 엉덩이를 흔들어대자 이번에는 일본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걸프렌드에게 반격을 하였다. ‘너는 왜 엉덩이가 그렇게 못 생겼냐? 그리고 너, 저렇게 섹시하게 엉덩이를 흔들 수 있어? 에이 한심한...’ 이러면서 수십만명의 일본 젊은 커플들이 파경을 맞았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1년 12월 말로 1000회가 넘는 집회를 가졌다.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그 할머니들의 한 많은 사연에 대하여 가타부타 대답을 못 내놓고 있다. 그 시절에 끌려가 수많은 탄광에서 희생된 징용 할아버지들에 대해서도 지금껏 시원한 사과 한 마디를 한 일이 없다. 남양군도에 끌려가고, 동남아로 끌려가고, 만주별판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징용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들

을 분명히 고용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다. 이것으로라도 사과가 된다면 받아주십시오’ 액수야 얼마가 됐든 성의껏 챙기면서 사과를 한다면 누가 액수가 적다고 탓을 하겠는가? 참으로 묘한 민족성이다. 자신들의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어떤 상태로 멈춰있는가 하는 내용도 일체 꿩귀먹은 소식이다. 일본의 언론들도 그 문제에만은 충실히 엠바고를 지키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동하는 나라이다. 2011년 12월을 기점으로 무역 1조달러를 이룩해낸 세계 9대 무역강국이 되었다. 새해에는 우리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의 무대를 누비자.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함구하며 한눈을 파는 민족이 있다면, 까짓것 무시해 버리자.

우리는 새로운 걸그룹과 아이돌스타와 새로운 드라마와 새로운 영화와 새로운 난타와 더 많은 무역과 더 좋은 자동차와 더 멋진 스마트폰과 더 딜력시한 크루즈선과 신에너지와 미래형 산업을 가지고 달리자. 그리고 세계의 무대에서 놀자. 우리는 이제 옛날의 우리가 아니다.



10주년을 기념하며

박 용 래(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협의회 회장)



송정동 우회도로 대로변 허름한 건물 3층에 씨울여성회란 간판이 보인 것이 약 8년전으로 기억된다. 퇴근길에 늘 보게 되는 간판. 씨울여성회! 무엇하는 단체일까? 여성 단체인 것은 분명한데 알 수가 없었다. 궁금증도 잠시 회사일로 바쁘게 돌아치다보니 까맣게 잊고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지역신문에 “씨울여성회 광라분이 소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나서야 우리 남성들에게 무서운 무시무시한 조직(?)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괜히 간판만 봐도 움추려드는 느낌이 들었다.

광라분이 소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창시절부터 농촌 계몽활동을 했으며 이후 또 신학대학을 졸업후 씨울운동을 펼치던 함석헌 선생의 제자로 사회 활동을 배우고 미국으로 가서 20여년간 학업과 민주화 운동을 했으며 이후 고향 대전에서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우리 광주와 인연이 닿아 성폭력 방지 및 성교육을 실시하는 여성단체인 씨울여성회를 탄생시킨 장본인 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이후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며 살던 어느 날 이었다.

2010년 5월초 계절의 여왕인 화창한 날 초대장이 우편 발송되어 나를 찾아왔다.

씨울여성회!

아~ 역시 무섭고 두려운 조직(?)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5월7일 역동의 카페를 방문했다.

“생명.평화.사랑 나눔의 일일카페”라는 글이 적힌 플랜카드 밑에서 노란 앞치마를 두른 여성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방명록에 서명하고 돌아서는데 평소 안면이 있던 가수협회 양재식 사무국장이 무대로 나오란다 무작정 노래를 하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니 무서운 조직(?) 씨울여성회 봉사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긴장 탓으로 돌리고 인사말로 대신하고 부리나케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이날이 씨울여성회와의 역사적인(?) 첫 대면이었다. 이후 또다시 바쁘게 생업에 몰두하고 살았다.

2010년 12월 상순으로 기억된다. 달력과 소형 수첩을 제작 주문하고 돌아가는길에 소형 승용차에 씨울여성회란 문구를 보게 되었다. 며칠 후 달력과 수첩을 기증차 씨울여성회 사무국을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광라분이 소장님실을 들어갔다. 몹시 추운 날 이었는데 작은 담요를 어깨에 걸치시고 웅크리고 난방도 안되는 사무실에서 난로도 없이 계시는 모습이 조금 의아했는데 잠시 후 코끝이 찡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씨울여성회 내에 광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민자 여성들이 한글 교육을 받는 동안 아기들을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데 본인은 작은 난로 마저 아이들에게 주고 자신은 차가운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이였다. 그 일이 있던 이후 다문화가정 송년회, 일일카페, 회원의 밤, 총회 등 씨울여성회 행사에는 가능한 만큼 참석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다.

작년 초여름 10여년의 활동을 뒤로 하고 광라분이 소장님이 씨울여성회 부설 성폭력 상담 소장을 퇴임하고 류복연 신임 소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퇴임하기 석달 전 고희연에서 소녀와 같은 밝은 미소로 주변에 인사말을 전하던 모습 자그마한 체구에서 강한 힘을 발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란 숫자앞에선 자리를 내려놓고 퇴임하는 광라분이 소장님의 뒷모습이 아쉬웠는데 다시금 상임이사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요즘 들어서 상생이니 공생이니 나눔봉사 또는 복지 등 신문 방송을 통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상생은 이제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자 이념이자 목표가 되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국제 사회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국제 원조의 공여국이 된 것이다.

이런 역사를 쓴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무엇이, 어떤 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만들었을까?

여성들의 힘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몇 년전 역술인이 2020년이 되면 세상의 기운이 바뀌며 양기가 쇠하고 음기가 성하여 남성들은 육아와 살림 등을 하게되며 정치, 경제 등 모든 요직은 여성들이 이끈다고 다소 황당한 글을 본적이 있다. 요즘 들어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웃고 넘길일은 아닌 것 같다. 와이프와 딸아이에게 미리 아부라도 해야겠다. 훗날을 위해서~~~~~

창립 10주년을 맞는 올봄! 열 살둥이 씨울여성회의 성장에는 수많은 봉사자들의 눈물의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 그 노력의 열매인 씨울여성회의 성장에 박수를 보낸다. 신임 류복연 소장님, 김영숙 사무국장님, 권숙향 상담부장님 그리고 영원한 소녀 광라분이 상임이사님, 성명옥 목사님, 영원한 청년 방송 작가이신 김광휘 이사장님, 씨울여성회 이사님들, 후원자들, 회원님들. 임진년 새해엔 날마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광주시의 중심이 되는 단체이길 기원합니다

우리광주의 천재적인 시인 허난설헌에 대하여

양 경 애 (독서토론회 회원)



뜻하지 않은 기회에 독서토론회를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고장 경기도 광주에 유적지가 있어서 이미 지나 다니며 알고 있었던 조선시대 여류시인 허난설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내용이였다.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책을 읽어보며 참 탐탁치않게 느껴졌다. 많은 사람, 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 별로 이름도 없는 옛날 여자를... 하는 생각도 들었고, 미리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 사실 더 싫어져서 뱃속이 뒤틀릴만큼 내키지가 않았다. 읽은 책의 내용은 간략히 허난설헌은 자가 경변이고 본명은 초희로 초당 허엽의 여식이며 그 가문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문장가의 집안이고, 당대에도 두 오빠와 동생 허균과 더불어 모두 오문장가라 일컬었다고 한다. 즉 특별한 집안이었다. 게다가 당시로는 특이하게 여자임에도 이름과 호와 자가 있었고 일찍부터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남자)과도 시를 논한다는 것이, 물론 천재적인 머리도 있었겠지만 집안 분위기가 특이했다. 너무나 특이한 집안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자란 천재에 대해서는 물론 잘한 점이 있다해도 후세의 나는 일반 씨올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싶지 않았었다.

첫 번째 독서토론회에서 각자의 소개를 마치고 함께 책을 읽어가며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고장 광주에 그 묘비가 있고 중국에까지 알려진 천재적인 시인이며 단명하여 안타깝지만 그 동생이 묶어 시집을 낸 <남자>라면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진 않았을 것이다. 여자는 참아야하고 인내해야하고 양전해야하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가 내게도 남아 있어서 어찌보면 그 시대로는 참지 못하고 잘난 척 제 재능을 드러내서 많은 문장가들로부터 더 많은 시샘을 받고 질타를 당하며,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더 잘난 아내로서 심리적 불편함을 주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라 생각도 들었다. 너무 잘난 며느리가 내 아들 기죽인다 생각하면 시모의 눈에도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결혼 후의 생활이 원만치는 못했다고 한다. 일화들을 읽어보면 참 현명하게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남편의 입장에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뛰어난 아내가 멀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다. 어린 두 자식을 먼저 여의고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마음이 짠하다. 특이한 것은 27세때 죽을 것임을 예언하는 시를 쓰고 정말 그때 죽었는데 천재감에서 신비감까지 든다.

그녀는 모아둔 시들을 동생 허균에게 모두 태우라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그러나 동생은 그 시를 잘 보관하며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통해 그 곳에까지 알리며 시집을 내고, 우

리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문집을 간행할 만큼의 많은 시를 지었던 것이다.

살아가면서 여자들이 더 뛰어난 능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에도 함께 살려면 조금은 저주고 낮추고 상대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는 더 많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너무 낮추고 남자 위주로 생각해서 평등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얼마 전 중국해적을 쫓기 위해 죽은 해경이나,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죽은 소방관이나, 지난 폭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의 죽음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런 드높은 책임감이 있어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임을 알기에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평등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고장의 역사적 인물의 생애와 그 고시들의 깊이를 공부해 보는 기회도 좋았지만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로 혼자서 이 책을 읽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참 감사히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시적인 천재임에도 여자여서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어려웠다는 것과 많은 당대의 문장가들이 남자여서 많은 시샘을 받고 평가절하 받았다는 것이다.

허난설현 묘는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 29-5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경험 “씨얼여성회” 사회복지사 실습을 마치고’



김 울 미 (사회복지 실습생)

내 인생의 새로운 경험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 아이의 엄마로의 인생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가다 나 자신도 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씩 알아갈 쯤 나의 실습일이 다가왔다

세 아이의 엄마로 가까운 거리와 어떠한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다 “씨얼여성회”를 알게 되었다 2002년 유교사상과 전통사상이 가득한 이 광주에 광라분이 상임이사님이 이곳에 처음 성폭력 상담소를 개설하였다.

“성폭력”하면 TV에서만 듣던 내용, 남의 이야기 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씨얼여성회의 업무를 배우면서 나의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이 시대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곳이 없는 것이 이시대의 현실이다. 하지만 씨얼여성회는 그러한 고민을 가진 여성들의 쉼터이고 하소연의 장소이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씨얼여성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에게 한글과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었다.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며 성명옥 센터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말로 그들의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한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곳이 있어 그들의 고민을 상담도 하고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씨얼여성회”는 너무나 바쁜 곳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 어린이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공연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방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문제의 순간을 대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 곳이다.

나는 실습을 통하여 여러 지역에 많은 복지 시설들이 있지만 그 시설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시민들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홍보의 필요성과 이러한 복지시설은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해야 하므로 그들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외받는 여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씨얼여성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실습기간 동안 소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 부장님께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나 또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세 마리

개구리 세 마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빠져 죽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우유가 너무 깊어서 이 통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빠져죽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현실을 잘 판단했다.
아무래도 일이 단단히 잘못되었군. 어쩌면 좋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천천히 뒷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딱딱한 무언가가 발에 닿았다.
그래서 뒷다리를 딛고 설 수가 있었다. 우유가 변한 버터였다.
다리를 움직여 우유를 휘젓는 동안 버터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위를 딛고 마침내 통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줄기차게 헤엄치기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무국 활동



◀ 제 4회 회원의날 / 문화워딩컨벤션4층(2011년 11월29일)

제1차 광주시 여성 정책 포럼 ▶
(7월 20일,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 사무국 조직활동
독서토론반 모임
제 4회 회원의 날
활동가 종무식 및 창립 10주년 준비모임

- 사무국 연대활동
광주시사회복지협의체 - 2011년 협의체운영보고
광주여성연대 - 7월여성주간행사 “제1회 광주시여성정책포럼”
경기여성연대 - 경기도 여성단체활동가 가을워크샵

사무국 조직활동

▶ 독서토론 모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누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인가” 허난설현 “

지역을 대표하는 숨은 역사속의 여성들을 발굴하여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고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허난설현에 대한 탐구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활동가들과 함께 12월말 경 강릉 초당에 있는 생가를 방문하여 허초희를 기념했다.



▲ 9월 19일 독서토론모임

▶ 제 4회 회원의날 행사

제 4회 회원의 날 행사에 그동안 씨울여성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회원분들을 모시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2011년 11월29일 화요일 문화웨딩컨벤션홀 4층에서 사회는 채리나 가수 진행으로 회원 약 50여명이 모여 장기자랑과 노래, 회원들과의 즐거운 화합과 나눔의 시간가지며 고마움을 전했다.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 주신 박용래 용성산업개발(주)대표, 손익배사장, 박해권 광주뉴스대표, 한상준 광주신문대표, 소병훈 민주당위원장, 윤정환, 김해수, 양경애, 박경애 선생님, 성교육강사, 인형극단원, 자원활동가, 결혼이민자가족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손익배 사장, 박용래 사장(왼쪽)



▲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한마당

▶ **총무식과 창립 10주년 준비모임 및 “허난설현” 생가 방문**

2011년 11월 26일~27일(무박2일)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 계획도 세워보고자 실무자의 단합대회 및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독서토론모임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허난설현” 역사 속에 특히, 남성들에 묻혀 빛을 잃어 버린 여성들을 발굴하여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고



▲ 허난설현 생가에서(성명옥, 김영숙, 류복연, 곽라분이 권숙향)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활력과 심을 갖고자 활동가들은 무박 2일로 정동진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고 창립10주년 준비모임 회의와 강릉 허난설현의 생가를 찾아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연대활동

▶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 회의 참석

매월1회 여성분과 위원으로 류복연소장(여성분과 총무)이 참석하였으며 문화분과위원으로 권숙향상담부장원이 참석하여 하반기 분과 사업 평가 및 2012년 분과사업을 논의하였다.

● 협의체 운영보고 참석

12월20일 오후 4시~6시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들이 참여하여 2011년 분과별 운영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 안내를 통해 민,관기관들이 네트워크와 위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광주여성연대**

● 운영위원 회의 참석

운영위 회의는 매월 1회 진행되며, 곽라분이 상임이사, 류복연 소장 참여로 씨울여성회 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광주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 개인간의 조직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과 평등, 평화, 민주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하반기 사업으로 가을워크샵에 대해 논의 하였다.

● 제 1회 광주시여성정책 포럼

제 1차 광주시여성정책포럼은 7월20일(수, 오후4시~6시)여성주간을 맞이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기여성연대 최미정대표는 여성정책에 대한 주제강연을 하였으며, 광주여성연대 김수영공동대표가 “우리가 꿈꾸는 여성이 행복한 광주”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어 논찬으로 광라분이상임대표, 소미순시의원, 장형옥시의원이 참여하였다. 지난 6.2지방선거에 제기했던 당선자 조억동시장의 여성정책공약사항과 여성정책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 점검하여 광주시여성정책이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그리고 여성친화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제정등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참여한 많은 분들의 질의 응답에 시간이 부족하였으며 뜻깊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랐다.

● 가을 워크숍 참여

11월24일(목, 오전10시~4시) 퇴촌 드리밍하우스펜션에서 진행했다. “광주여성연대 더 가까이 소통하며” 라는 주제로 15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평화의 명상을 시작으로 여성으로 살기 위해 “나는 행복한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춤테라피를 통해 그동안 활동가로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현재의 나를 잠시 내려놓고 김영목사의 인도로 “미래의 꿈을 이룬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엮어나가면서 즐거운 소통의 기쁨을 나누었다.



▲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중



▲ 광주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 경기여성연대

● 운영위원 회의 참석

분기별(8월26일,12월1일)진행하는 운영위원 회의에 광라분이 상임이사는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로 성명옥 센터장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였다.

● 경기도 여성단체활동가 가을워크숍 참석
 경기도 여성활동가 가을 워크숍이 9월23일 (금, 오전10시~8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곽라분이 상임이사, 강미정, 류복연, 권숙향, 김영숙, 오마제선생으로 씨을여성활동가, 회원이 참석하였다.



● '6.2지방선거 당선자 공약사항 실천과 대안' 에 대한 3개시가 진행한 여성정책 포럼에 관한 평가를 11월 8일(화, 오전 10시~4시)경기도여성비전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여성정책포럼평가 및 보고회에 곽라분이 상임이사와 류복연 소장이 참석하였다.

